

가습기살균제 오너들 불려가나?

20대 국회 개원 즉시 청문회 실시 가능성 높아져… 출석대상 포함될까 ‘노심초사’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20대 국회 개원 즉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제조·유통업체들이 그룹 총수나 협회 대표가 청문회 출석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검찰 수사 이후 뉘우친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었지만 정치권의 상황이 달라져 관련 업체에 선 발등의 불이 됐다.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검찰 손을 떠난 뒤 청문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던 여당이

병행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호했기 때문이다.

다면 여당은 검찰 수사 중인 업체를 제외한 진상 규명에 필요한 병원 측이나 정부 관계자로 한정해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상 여당의 이같은 요구를 아쉽게는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쉽게는 여권과 재계에선 청문회가 기업인 맹신주기식 ‘호통 감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했지만 여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에도 여권과 재계에선 청문회가 전직 임원 책임지뿐 아니라 협회 대표 및 그룹 오너까지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들의 전방위적

출석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된 청문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그룹 오너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전례가 있다.

전시에도 여권과 재계에선 청문회가 기업인 맹신주기식 ‘호통 감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했지만 여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진수 기자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비누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웰빙스 매장에서 모델들이 아이스크림처럼 떠서 비르는 클렌저 ‘아이스크림솝’을 선보이고 있다.

신보, 성과연봉제 확대실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춰 비간부직(3급·4급)도 현행 간부직 수준으로 성과연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기본연봉의 차등 인상 실시, 성과연봉 비중 확대 및 최고·최저간 차등 폭을 2배까지 확대했다.

신보 관계자는 “향후 평가·교육·인사 등 경영 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JB희망의 공부방 제43호’ 오픈

全銀, 순창다문화지원센터

활용도가 떨어졌던 공간을 공부방을 꾸몄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5일 순창군다문화기독지원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43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순창군다문화기독지원센터는 결

혼이주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앞서 순창군다문화기독지원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독립된 공부방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은행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영수 기자



하림, 익산지역 초등생

42명에 도서전집 전달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이문용 대표이사)이 “지역 초등학생 42명에게 도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하림은 지난 24일 전라북도 익산의 본사 대강당에서 이문용 대표이사와 하림 임직원, 류지숙 익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정기원 익산시립도서관관장, 익산지역 초등학생 및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회 하림과 함께하는 초등장학생’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익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선정한 42명의 장학생에게 세계명작, 과학, 인물, 역사 등 도서전집을 전달했다.

‘하림과 함께하는 초등장학생’ 시상은 (주)하림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해마다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까지 120여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이번 시상식은 특히 (주)하림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접수화 한 ‘사회공헌 미يل리지’ 제도를 통해 적립된 기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날 (주)하림의 이문용 대표이사는 학생들에게 “많은 책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꿈을 키우고 실현하여 미래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여름맞이 신상 뷰티아이템 쏟아져

페어론 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화장품업계에서는 여름맞이 뷰티 아이템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신문제와 데오도란트 등 기본제품을 외에도 물여름 여성들을 반짝반짝 빛내줄 신상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5일 탄력있는 피부를 위한 베쓰 앤 네이처 미테비디 미시지 젤’을 출시했다. 미테이미는 각종 비타민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남미의 녹차나 불리며, 건강미 넘치는 남미 여성들의 몸매 관리 비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품에는 미테성분 외에도 카페인과 녹차 추출물, 서양 송악 추출물 등 4가지 자연 성분의 ‘피토슬리’ 복합물이 포함됐다. 풍부한 수분감으로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이 된다. 360도 회전하는 고탄력 실리콘 롤러가 내장돼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마사지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손길을 반짝반짝 빛내줄

네일아트 제품들도 출시됐다.

아리따움은 네일아트를 위한 ‘모디, 유니스텔라’, ‘TWINELI’ 과의 트리플 콜라보레이션으로 ‘히피걸즈 콜렉션’을 출시한다. 시원한 컬러로 구성된 모디 컬러젤 8종과 히피감성의 트렌디한 네일 스티커 5종으로 구성됐다.

스티커 5종은 유니스텔라와 함께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작업, 가죽 질감부터 요즘 떠오르는 아즈텍 패턴 까지 여름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담았다.

황금남 스티일리스트의 약세리브랜드인 TWINELI는 네일록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리따움은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기념, 메가샵에서 네일 제품을 구매하면 실반지를 증정할 예정이다.

미샤는 ‘선케어 전품목 1+1’ 행사를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한다. 미샤에 따르면 5월 3주차에 선케어 제품 매출은 전주에 비해 14% 증가했다.

/인진수 기자



전북농협과 광주공판장은 지난 24일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정가·수의매매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농협-광주공판장 정가·수의매매 협약

안정적 거래처 확보 예상

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은 농협경제지주 광주공판장(사장 이태현)과 농산물 가격안정과 전북농산물의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위해 지난 24일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정가·수의매매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가·수의매매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제도와 다르게 상대방을 지정(수의)하거나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 대상을 결정하는(정가) 거래하

는 방식이다.

이는 경매제도와 함께 도매시장의 정식 거래방식으로써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방식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읍단풍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대표 이정진)과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홍관), 광주공판장 중도매인(한결농산 대표 김태완, 광주마케팅 대표 서해영)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토마토(정읍),

장수)와 방울토마토(정읍), 사과(장수) 품목을 광주공판장을 통해 정가수의 매매로 광주공판장에 출하하고 농협 광주공판장에서는 우수 출하사자에게 상품화비 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공영도매시장과 산지 간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도매시장과 정가·수의매매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우기대비 기전시설물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25일 귀석배수장(금지면 하도리 소재)에서 집중호우 등 비상사태 발생시 최적의 운전상태 유지로 재해예방을 위한 “2016년 우기대비 기전시설물 점검 및 가동 허용”을 실시하였다.

공사 직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석배수장 운전요령 및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집중호우에 따른 금지면 일대 침수 위험 상황과 낙뢰로 인한 배수장 가동 불가능 상태를 가정하여 배수장 비상발전기 가동 등의 상황을 중심으로 응급상황 시 매뉴얼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였다. 남원지사 박재근 지사는 교육이 종료된 후 최근 기상이변과 인천불管家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각자 맡은 임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율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기전시설물의 최적의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출장을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동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